<글쓰기-07반> PBL 보고서[1)]

이름	고유나	글쓰기 수업 분반	07
학번	20232028	글쓰기 담당 교수	이현정

국민대학교 해동 도서관 좌석 문제 및 해결방안

식품영양학과 20232028 고유나

[**목 차**]

Ⅰ. 서론
Ⅱ. 국민대학교 열람실 현황
  1. 국민대학교 열람실 분포 및 좌석 현황
  2. 성곡도서관 열람실 입실·퇴실 통제 및 좌석 발급 시스템 현황
Ⅲ. 국민대학교 해동 도서관 좌석 문제점
  1. 좌석 수 부족 문제
  2. 노쇼 문제
Ⅳ. 해결방안
  1. 열람실 추가 개방
  2. 게이트 추가 관리
  3.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좌석 현황 실시간 탐지
  4. 좌석 무게 측정 방법
  5. 직접 경고 및 적발
Ⅴ. 결론

Ⅰ. 서론

1) 이 글은 2023년 1학기 국민대학교 <글쓰기> 교과목의 2조 PBL 활동을 바탕으로 쓰여졌음을 밝혀둔다.

대학교 내의 도서관은 늘 학업 및 과제에 몰두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더욱 증가하는데, 본질적으로 좌석의 수가 부족한 문제점도 있지만 실제로 도서관의 열람실 내부를 살펴보면 비어있는 자리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리를 배정받은 후 장시간 비워두는 경우 또는 미리 온 학생이 다른 친구의 자리를 대신 잡아주거나, 공부를 마치고 자리를 반납하지 않은 채 도서관을 떠나는 경우에 의해 발생한다.[2)]

국민대학교에 입학하고 이러한 현상이 특히 해동 K*reator's Lab이라는 한 공간에만 유난히 집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다른 열람실에 비해 특히 해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동은 다른 열람실과는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이다. 좌석 발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카페형 학습공간으로, 자유로운 토론과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시험 기간에 유일하게 24시간을 개방한다. 국민대학교 내의 모든 열람실 중 해동 도서관만이 시험 기간에 한정하여 24시간 개방하기에 새벽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모두 해동 도서관을 찾는다. 셋째, 노트북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열람실들은 타자 소리 등의 소음을 허용하지 않지만 해동 도서관은 소음을 허용한다.

해동 도서관을 선호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불만을 발생시켜 민감한 시기에 다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일으킨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재 국민대학교의 열람실 현황 및 해동 도서관의 좌석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국민대학교 열람실 현황

1. 국민대학교 열람실 분포 및 좌석 현황

현재 국민대학교에는 약 20여 개의 열람실이 분포되어 있다. 북악관(7층 열람실, 9층 열람실), 복지관(3층 열람실), 성곡 도서관(2~4층 도서실 내 학습 공간, 자료실, 스터디룸, 2열람실, 금하열람실, 멀티미디어 정보실, 해동KL), 경상관(경상홀), 경영관(콘서트홀 3층 중앙, 프로젝트 라운지), 미래관(자주스, 무한상상실, 드론스튜디오), 법학관(1층 스터디카페), 공학관(3층 스터디 라운지, 5층 스터디 라운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성곡도서관, 복지관 외의 대부분의 열람실은 개방 시간이 짧거나 특정 학과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학습 공간으로 많은 학생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학생이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어 왔던 성곡도서관의 좌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좌석 배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은 2열람실, 금하열람실, 멀티미디어정보실, 해동KL로 구성되어 있다. 2열람실은 300석, 금하 열람실은 236석, 멀티미디어정보실은 50석, 해동 KL은 110석으로 총 696석이 이용할 수 있다. 시험 기간이 아닌 학기중에 금하열람실은 07:00~21:00까지만 개관하며, 2열람실 및 해동KL은 07:00~23:00까지만 개관함에 따라 학생들은 23시 이후 도서관 이용이 불가하다.

2. 성곡도서관 열람실 입실·퇴실 통제 및 좌석 발급 시스템 현황

현재 성곡도서관 열람실에 입실·퇴실하기 위해서는 실물 학생증 혹은 모바일 K-CARD를 활

2) 김수인 외 6명(2017), 「효율적인 도서관 자리 배정 시스템」,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7), 대한전기학회, 98쪽.

용하여 게이트를 통과하여야 한다. 하지만 해동KL은 게이트가 따로 없어 자유롭게 누구나 입실과 퇴실이 가능하다. 따라서 좌석 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기 중에는 더욱 외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이는 또다시 좌석 부족 문제로 이어진다.

성곡도서관의 열람실 좌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곡도서관 모바일 앱 또는 좌석 배정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좌석을 발급해야 한다. 열람실은 3시간, 멀티미디어 정보실은 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만료 1시간 전부터 연장이 가능하다. 30일 이내 3회 미반납 시 2일간 좌석 발급이 정지되며, 제재 후에도 기존 미반납 내역은 소멸되지 않아 30일 이내 추가로 미반납 시 다시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3] 하지만 이러한 좌석 발급 시스템은 큰 허술함을 가지고 있다. 3시간마다 전자 출결 방식으로 확인이 필요한데 모바일 앱에서 인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경우 대신 인증이 가능하다. 이는 도서관 자리를 예약해두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로 이어져 다른 사람이 도서관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Ⅲ. 국민대학교 해동 도서관 좌석 문제점

1. 좌석 수 부족 문제

국민대학교 재학생 34명을 대상으로 2023. 05. 16~ 2023. 05. 19에 구글 폼을 활용하여 진행한 설문조사[4]에서 '시험 기간 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약 82%는 '예'라고 답했으며, '학교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약 68%가 '예'라고 답하였다. 또한, 약 2/3 정도의 응답자가 시험 기간 열람실 이용에 있어 불만족한 이유로 좌석 수 부족을 꼽았다. 이를 통해 국민대학교 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는 좌석 수 부족 문제이며, 그중에서도 소음이 가능한, 즉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국민대학교 내에서 노트북의 소음이 허용되는 열람실은 경상관, 경영관, 복지관 열람실의 일부와 성곡도서관 2열람실 내 노트북 열람실이 있다. 그러나 각 관 내부의 공간은 해당 단과대생 전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규모가 작아 좌석이 얼마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국민대학교 내에서 매일 24시간 개방 중인 열람실은 없으며, 오직 해동 도서관만이 시험기간에만 한정적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시험 기간에는 과마다 신청받아 24시간 공부할 수 있는 철야 강의실을 운영하지만, 이마저도 과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결국에는 해동 도서관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 노쇼 문제

노쇼 현상은 도서관 좌석을 예약해놓고 자리를 비워두는 일명 '좌석의 사유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각 대학교는 도서관 자치위원회(이하 도자위)를 운영하며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도자위는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관리자의 순찰을 통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학생을 제재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짐이 있는 미등록 자리엔 경고 카드를 두고 다음 순번의 근무자가 발견 시 이를 사석화로 판단해 짐을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 노쇼 현상을 해결하고자 한

3) 「이용안내 리플렛」,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https://lib.kookmin.ac.kr/#/guide/guideline (2023.06.02.)

4) https://forms.gle/PQckTn97NoVoMPCo9

다.[5]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때로는 학생들과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짐을 회수해도 한참 뒤 찾아가거나 찾아가지 않아 폐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재 국민대학교 내에서도 이러한 노쇼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 왔다. 위의 설문조사에서 '해동 중 노쇼 피해를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56%는 '예'라고 답하였다. 또한,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서는 좌석을 예약해두고 보이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글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허술한 도서관 인증 시스템과 따로 관리되지 않는 노쇼 현상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해결방안

1. 열람실 추가 개방

기존 열람실이 소음이 허용되지 않고, 24시간 개방되지 않아 해동 도서관에 사람이 몰리는 만큼 기존 열람실을 학생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확장해야 한다. 따라서 단과대생 전용 공간이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북악관이나 복지관의 기존 열람실을 소음이 허용되는 공간으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선호도가 해동 다음으로 높았던 2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하는 방법이 있다. 2열람실은 소음이 허용된 노트북 열람실이 따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장 많은 좌석을 사용할 수 있기에 해동 도서관으로 몰리는 인원을 분산시킬 수 있다.

열람실을 추가로 개방하게 될 경우, 관리인 또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는 오후 시간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근로 학생이 있는 것과 같이, 새벽에 열람실에서 공부하면서 관리 감독할 근로 학생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자신의 학업에도 집중하고, 열람실 추가 개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게이트 추가 관리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성곡도서관과의 차이점이 뚜렷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생증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것은 같지만, 게이트에 있는 경비원을 통해 입실과 퇴실, 그리고 외출을 관리한다. 외출 가능 시간은 한 시간 반으로 제한되어, 초과 시 자동 반납 처리되며 짐이 회수된다. 또한, 시험 기간 외에도 좌석 예약제를 운영하여 노쇼 현상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공간 조정 리모델링을 통해 열람실 노쇼 현상 방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희대학교 또한 꾸준히 학내에서 불만 사항으로 열람실 사석화 현상이 제기되었는데, 도서관의 입구 게이트를 열람실 좌석과 연동시켜, 게이트 밖을 나가면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좌석이 반납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대학교 도서관 최초로 게이트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였다.[6]

타 대학교의 시스템은 확실히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과의 차이점이 있으며, 똑같이 제기된 노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출과 퇴실을 구분하고, 자동 반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타교의 게이트 관리 방법을 참고하여 본교의 게이트를 추가로 관리해야 한다.

---

5) 이창호(2019.03.26.), 「'예약된 자리에 사람이 없다?' 대학 도서관 좌석의 사유화 문제 논란」, 『매거진 한경』,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102164702d (2023.06.02.)

6) 경희대학교 교육혁신사업단 관리자(2019.09.27.), 「열람실 노쇼현상 방지 위한 게이트 신설 및 그룹스터디룸 설치」, 『경희대학교 교육혁신사업단』, https://eip.khu.ac.kr/eip/sub/tab.do?MENU_SEQ=257&TAB_SEQ=281&action=DETAIL&CONTENT_SEQ=366 (2023.06.02.)

3.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좌석 현황 실시간 탐지

카메라에 찍히는 영상을 재구성하여 그래픽으로 보여주면서 사람과 좌석, 소지품을 탐지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치와 시간에 따라 테이블만 탐지되면 '사용 가능', 사람이 탐지되면 '사용 중', 물체만 탐지되면 '자리 비움', 자리 비움 상태가 장시간 유지되면 '장시간 자리 비움' 상태로 나누어 좌석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7]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좌석을 탐색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자리 선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이 도입되면 학교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 도서관의 좌석 유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좌석을 점유한 채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에 대한 불만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좌석 무게 측정 방법

압력 센서를 의자에 부착하여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는지 판단하고, 온도 센서를 부착하여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은 경우와 사람이 앉아 있을 때를 구분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두 가지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는지 판단하고, 센서들로부터 입력받은 정보들을 사용하여 현재 좌석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8]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도서관 자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인지할 수 있으며, 도서관 이용에 편리함을 가져다줄 것이다. 좌석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과 온도 측정, 이에 추가로 좌석에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배정된 자리를 강제 반납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도서관 자리 배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9]

5. 직접 경고 및 적발

좌석 부족 문제 및 노쇼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시험 기간에는 직접 경고 및 적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부재 시 경고문을 부착한 후 연속적으로 부재가 누적될 시 소지품을 수거하여 열람실의 필요한 회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근로 학생을 통해 강제 반납 처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방법이 자리를 잡아간다면 본교의 심각했던 노쇼 현상 문제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Ⅴ. 결론

대학 도서관 열람실은 누구나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하루에도 수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특히 강의가 비는 시간대에 자신의 학업 및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자주 이용한다. 즉, 도서관 및 열람실은 단순한 건물이나 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10] 따라서 공공시설인 학교 도서관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 비켜주는 배려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교에서 자

---

7) 고성지 외 3명(2022),「신뢰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단일 캠 좌석현황 실시간 탐지 솔루션」,『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29(2), 한국정보처리학회, 719~720쪽.
8) 김수인 외 6명(2017), 앞의 논문, 99쪽.
9) 위의 논문, 98쪽.
10) 이승민(2020),「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재고찰」,『한국문헌정보학회지』54(1), 한국문헌정보학회, 45쪽.

신이 예약한 자리에 짐만 두고 오랜 외출을 하는 등의 노쇼 현상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 본교인 국민대학교 또한 노쇼 현상과 이에 따라 더욱 심각해진 좌석 수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해동 도서관의 문제점을 크게 좌석 수 부족 문제와 노쇼 문제로 나누어 해결방안을 의논하고자 하였다. 그 해결방안으로는 열람실 추가 개방, 게이트 관리, 애플리케이션 또는 좌석의 무게 측정을 통해 좌석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 직접 경고 및 적발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면 잦고 장기적인 외출을 관리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회전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좌석 수를 확충하거나 제도적인 방안을 사용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교내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생의 작은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내 도서관의 열람실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자, 함께 생활하는 학우들과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다. 만약, 열람실을 장시간 비워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좌석을 반납하고 다시 도서관에 돌아와서 좌석을 예약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고, 이러한 태도가 이어지면 큰 문제 없이 모두가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발성이 부족하여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된다면 이 글에서 제시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보다 나은 열람실 환경 조성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국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서관 열람실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마련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논문

고성지 외 3명(2022),「신뢰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단일 캠 좌석현황 실시간 탐지 솔루션」,『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29(2), 한국정보처리학회, 718-720쪽.

김수인 외 6명(2017),「효율적인 도서관 자리 배정 시스템」,『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7), 대한전기학회, 98-99쪽.

이승민(2020),「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재고찰」,『한국문헌정보학회지』54(1), 한국문헌정보학회, 29-49쪽.

2. 기타

「이용안내 리플렛」,『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https://lib.kookmin.ac.kr/#/guide/guideline (2023.06.02.)

경희대학교 교육혁신사업단 관리자(2019.09.27.),「열람실 노쇼현상 방지 위한 게이트 신설 및 그룹 스터디룸 설치」,『경희대학교 교육혁신사업단』, https://eip.khu.ac.kr/eip/sub/tab.do?MENU_SEQ=257&TAB_SEQ=281&action=DETAIL&CONTENT_SEQ=366 (2023.06.02.)

이창호(2019.03.26.),「'예약된 자리에 사람이 없다?' 대학 도서관 좌석의 사유화 문제 논란」,『매거진 한경』,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102164702d (2023.06.02.)